

2000년대 한국 사회지리학의 경향과 논제들 -(2) 경험적 연구들-

최병두*

Trends and Issues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s in S. Korea: (2) Empirical Researches

Byung-Doo Choi*

요약 :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범죄·교육·의료보전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지리학,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 고령사회, 다문화사회

Abstract : Korean society in the 2000 has experienced new many social and spatial issues such as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and changes in urban and spatial polici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econfiguration of informational social space, radically increasing foreign immigrants and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injustice, and these new issues have promoted development of social geography in Korea. In addition to a review on them, this paper provides a review on empirical researches on traditional issues which have been dealt with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 in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sub-issues,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urban and communal social geography including urban housing and residential segregation, urban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crime,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urban and rural community building, identity, sense of place, and social movement; the other is social geography of population and migration, including population movement, aged society and social welfare for elderly people, and foreign immigrants and formation of multicultural social space. As som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path-dependent process of neoliberalism, transformation toward informational,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aged, and multicultural society would continue, so social geography in Korea to tackle with these external conditions should deepen its theoretical insights and widen its research issues..

Key Words : Social geography, urban and rural social geography, social geography of population and migration, aged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1. 머리말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포드주의 경제의 성숙과정을 통해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지구적 변화과정을 촉진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화 및 탈냉전 체제로의 전환을 동반한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했다. 이러한 지구적 및 국가적 변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은 현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학문적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화, 세련화를 촉진했고, 사회지리학 분야의 연구도 이에 부응하여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주제들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새로운 주제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그 자체로서 한국 사회공간의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전통적 이슈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들은 한정된 지면 관계로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하고(Choi, B.D., 2012b), 여기서는 주로 전통적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지리학 분야에서 제시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세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도시 및 지역의 사회지리, 그

리고 인구 구성 및 이동의 사회지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2가지 범주 속에 세부 범주들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2000년대 한국 사회지리학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논평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전통적 연구 주제라고 할지라도 사회공간적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들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한 경험적 연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상당 정도 이론적 논의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우선 도시 및 지역의 사회지리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 즉 도시의 주거 및 주거지 분화, 빈곤·범죄·교육·의료보건의 도시사회문제, 지역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의 재구성, 그리고 정체성, 장소성과 도시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인구 구성 및 이동의 사회지리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 즉 인구 이동의 특성과 성향, 이와 관련된 도시나 지역의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복지문제,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과 다문화 사회공간으로의 전환 등을 다룬 연구들에 관해 논평을 하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지리학의 연구 전망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간략히 제안할 것이다.

2. 도시 및 지역의 사회지리

1) 도시 주거와 주거지 분화

도시 주거와 주거지 분화는 사회지리학의 가장 전통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도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에 관한 연구방법론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주거 및 주거지 분화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항상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류연택(Ryu, Y.T., 2005a)은 최근 도시 주거 연구의 인식론적 주제들로 에이전트, 제도, 자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젠더 등을 제시하고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 즉 제도적 접근, 정치경제학, 정체성 접근, 그리고 페미니스트 관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류연택(Ryu, Y.T., 2005b)은 도시 주택 및 거주지 구조에 관한 생태학적, 신고전적, 행태적, 관리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제시하였으며, 류연택(Ryu, Y.T., 2007)은 한국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및 정치적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다소 유사하게, 정수열(Chung, S.Y., 2008)은 이론적 맥락에서 도시생태학과 포스트모던 도시주의가 근린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미국 도시에서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분석틀—지리적 동화론, 장소층화론, 민족성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다른 한편, 이상일(Lee, S.I., 2007; 2008)은 계량적 분석기법에 있어 기존의 방법들, 예로 상이치수(index of dissimilarity), 공간적 격리지수(spatial indices of segregation)의 단점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공간 분리성 측도 방법으로 국지 통계량에 기반한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 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이나 관점들에 관한 논의는 이에 관한 논의들이 복잡하고 또한 여러 갈래로 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류연택의 연구는 한편으로 도시 주택연구의 인식론적 주제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다양한 관점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국의 주택개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스케일의 정치' 개념을 도입한 점은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인식론적 주제를 특정 관점이나 접근방법과 배타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어떤 문제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예로, 류연택(Ryu, Y.T., 2005a)에 따르면, 도시 주택의 공급 및 분배 과정에 미치는 제도, 기관,

개인의 역할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도시 주택시장에서의 갈등, 권력, 그리고 시장 진입 차별성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이 유의한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또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체성 접근, 페미니스트 접근에서도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제들을 각각의 접근방법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접근방법들의 종합이나 이론화 작업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주거 및 주거지 분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 접근방법들을 원용하여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주택시장의 분석을 통한 도시 주거에 관한 연구로서, 류연택(Ryu, Y.T., 2004)은 주택 및 주택 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주택 시장시스템의 작동과 이를 통한 주택의 (재)생산 및 분배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으며, 또한 류연택(Ryu, Y.T., 2006; 2010)은 한국 도시 전체 및 서울의 하위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공간적 차이(또는 불균등)를 고찰하였다. 주경식·박용우(Joo, K.S. and Park, Y.W., 2010)는 도시 성장과 더불어 주택시장이 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간적 분화 패턴, 주택하위시장의 분화와 교외화 간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 주택시장이 하위시장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교외화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시장의 시공간적 변동과 차이가 부동산 자본의 흐름 및 주거 계층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주거이동의 분석을 통한 도시 주거에 관한 연구로서, 천진홍·이성우(Chun, J.H. and Lee, S.W., 2007)는 이주의 결정요인과 이동 유형별 주거 선택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주 유형이 자가 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희연·심재현(Lee, H.Y. and Shim, J.H., 2009)은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서울시 젠트리피어의 주거 이동 패턴과 이주 결정요인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통해 분

석하고 있다. 이정섭(Lee, C.S., 2011)은 진주시를 사례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에 대한 출생 코호트 접근의 유의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택시장 또는 주거이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도시 주거공간의 패턴이나 주거지 분화의 특성이 좌우됨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주의 결정 요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 생애주기 등으로 이해하는 행태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 논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도시 주거의 특성은 경험적 자료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 그 역사적 함의로 이해되거나 또는 설문조사 등에 따른 주거 실태 및 만족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접근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도시 주거가 가지는 유형적, 경관적 특성, 예로 아파트 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배미애(Bae, M.A., 2007b)는 부산시를 사례로, 거주공간과 주거지 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민족별 분화와 정책적 이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분화와 빈민지역의 형성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김태열·진원형·양성환(Kim, T.Y. *et al.*, 2011)은 대구시 중심 시가지 접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을 주거 실태 조사와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설문조사나 역사적 서술을 통한 주거 만족도와 주거지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한국 도시 주거유형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특이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매우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 주거 경관에 관한 특이성은 한국에서 연구한 프랑스 지리학자, 줄레조(Kil, H.Y., 2007)의 눈을 통해 매우 잘 묘사되고 있다. 줄레조는 한국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어떻게 그토록 급격하게 보급·확산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으로 아파트단지의 역사와 공간에 관한 고찰, 아파트 단지 양산의 메커니즘을 개인의 주거사와 결합한 분석, 그리고 도시 주택의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의 도시적 현대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임석희 외(Yim, S.H., 2003)와 최병두(Choi, B.D.,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양식은 자본주의적 주택시장의 발달과 도시인들의 이기주의적 생활양식 간 상호결합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또한 아파트 공유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장소로 제시될 수 있다.

2) 도시문제의 사회지리

사회지리학이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도시문제들에는 주거문제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 예로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전 문제 등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노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 등의 이름으로 복지부문에 대해 (최소한 명목상으로) 관심을 보였다 할지라도 실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이나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들의 도시빈곤뿐만 아니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새로운 도시빈곤층, 즉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하게 되었다.

임석희·이용우(Yim, S.H. and Lee, Y.W., 2002)는 이러한 맥락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그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노대명 외(No, D.M. *et al.*, 2006)는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임석희·이용우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임대)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자산, 특히 주거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성규(Ha, S.K., 2000)는 도시빈곤의 한 유형으로 주거빈곤의 특성을 고찰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양극화와 도시빈곤은 2000년대 후

반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영아·정윤희(Lee, Y.A. and Jeong, Y.H., 2012)는 도시의 빈곤층이 모여살고 있는 도시빈곤지역을 노후불량주거지역, 임대아파트지역, 다가구·다세대지역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빈곤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의 경제적 위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공간상에 또는 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공간적 양극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드러난 현상적 분석에 머문다면, 실제 양극화를 유발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간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범죄는 그 동안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면서 몇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고준호(Ko, J.H., 2001)는 청주시 도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발생 장소와 범죄 기회 간 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고준호(Ko, J.H., 2007)에서 범죄 발생과 범죄의 두려움 간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예로, 어두운 조명, 인적이 드문 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선영·문태현(Heo, S.Y. and Moon, T.H., 2011)도 유사하게 도시 내 범죄발생과 범죄 두려움 위치의 공간적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호(Kim, Y.H., 2007; 2009)는 통계적 기법들을 이용하여, 도시 주거범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신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범죄가 장소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사회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 범죄를 발생 장소나 또는 범죄의 두려움, 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신분 등과 관련시키는 미시적 분석에 머물러 있으며, 보다 거시적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 발생의 사회경제적, 정치·정책적 배경과 관련시킨 연구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물론 도시 범죄의 발생은 위에서 논의한 사회공간적 양극화의 심화 및 도시 빈곤의 상대적 증가와 직접적 관계가 없

다고 할지라도,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 및 도시의 사회공간적 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학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특히 2000년대 사교육의 확장과 이로 인한 사회계층적 부담능력의 격차 확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은영(Choi, E.Y., 2004a; 2004b; 2004c)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 세대의 학력자본이 양적 및 질적으로 매우 차별적으로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 의하면, 서울의 강남구의 경우 고학력집단의 지속적 집중과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비가시적이지만 견고한 사회경제적 장벽을 갖는 빗장도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들 간 학력자본의 차별화의 시정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에 따른 학령인구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학군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안재섭(Ahn, J.S., 2009)은 울산시를 사례로 학령인구의 특성과 학교선호도에 바탕을 두고 학교군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의 사회지리적 문제를 가운데 또 다른 주제는 의료보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건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의 불균등, 의료서비스의 입지와 이를 필요로 수요자 간의 공간적 부조응 등을 포함하며, 따라서 사회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금숙(Lee, K.S., 2005)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조사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공간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격차문제를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수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대도시 및 경제적 중심지에 집중 분포하고, 촌락 및 경제적 주변지역은 크게 미흡한 상태여서 공간적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감영·신정엽·이건학·조대현의 공동연구로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Kim, K.Y. *et al.*, 2009; Cho, D.H. *et al.*, 2010; Lee, G.H. *et al.*, 2010)은 한편으로 농촌지역의 과소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접근

근성의 제한, 다른 한편으로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최근 방문보건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이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역 설정 모델을 수립하고 GIS 환경에서 구역설정 모델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방문보건 서비스를 위한 최적 경로를 설정하고자 한다. 박수경(Park, S.K., 2011)은 충청북도의 사례를 통해서 온라인 협진의 지리적 특성과 환자의 온라인 협진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온라인 협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의료권에 위치한 의료 기관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상적인 원격진료를 위하여 지역의 의료 서비스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의 재구성

사회복지의 공간 분포 또는 격차에 관한 연구는 사회지리학의 세부 주제들이나 관련 요소들(즉 직업, 소득, 교육, 의료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2000년대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었는데, 예로 최윤정·이금숙(Choi, Y.J. and Lee, K.S., 2005)은 한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문화·사회적 복지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를 파악하였으며, 대부분의 기회잠재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소도시들조차 주변 대도시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미애(Bae, M.A., 2007a)는 모자보건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 집단과 실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간 공간적 불일치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임석희(Yim, S.H., 2009)는 전국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입지 및 서비스 제공의 지역 격차를 고찰하였고, 김병선 외(Kim, B.S. *et al.*, 2011)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복리 환경의 시공간적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전국적 차

원에서 사회복지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면서, 지역 격차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전달체계(또는 과정)에 관한 고찰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분포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따라서 심각한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도시의 사회공간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가기에 촌락보다 더 좋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물질적 사회생활(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도시든 촌락이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점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과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대되는 만큼 삶의 터전인 공간환경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지역 만들기’ 운동이 정부 정책 및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지역 만들기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였으며, 이를 위한 지리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하게 개선되었던 주제였다. 예로, 최병두(Choi, B.D., 2006)는 신도시주의, 창조적 도시, 사회적 자본 등의 개념들을 재검토 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재하(Lee, J.H., 2007)는 삶의 질과 더불어 공간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김덕현(Kim, D.H., 2007)은 진주시를 사례로 중소도시의 좋은 지역만들기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좋은 도시 또는 지역 만들기 운동의 구체적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대구 삼덕동에서 시작한 담장허물기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윤옥경(Yoon, O.K., 2008)은 이를 사례로 도시 지역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은 도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도시사

회지리학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으며, 촌락 사회지리학에 대해서는 개념적 이론적 논의가 매우 빈곤한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중환(Jeon, J.H., 2005a)은 촌락사회지리학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촌락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중환(Jeon, J.H., 2005b)은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3 차원으로 나누어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촌락사회는 사실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인구유출과 이로 인한 노령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다. 심광택(Sim, K.T., 2009)은 인구 구조와 영역 자산의 활용을 중심으로 촌락 지역의 사회적 공간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은 다양한 변형으로 촌락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임은진(Lim, E.J., 2011)은 생태주의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촌락 또는 정주지 만들기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임석희(Yim, S.H., 2005)는 농촌지역을 특징짓는 다양한 변수들을 요인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을 유형화하고 이를 향후 농촌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반면, 최병두 외(Choi, B.D. *et al.*, 2010)는 특정 농촌지역, 즉 대도시 근교지역인 고령군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의 제반 측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지리학에 특화된 연구라기보다는, 자연 및 인문지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별 전문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적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의 지리적 연구는 대상 지역의 사회복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며, 연구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상실된 전통적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적으로 제시된 주제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를 안고 있으

며, 이러한 점은 당시 도시 및 지역 만들기 정책 및 운동이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서 강조되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마치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4) 정체성, 장소성, 시민사회운동

살기 좋은 사회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시 및 지역사회 재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경관이나 새로운 시설 또는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 및 지역에서 공동체적 사회관계와 더불어 이의 뿌리내림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나 장소성을 전제로 한다. 최병두(Choi, B.D., 2008)는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지역 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체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에 내재된 유의성과 함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 공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직접 전제로 한 광장이나 도로,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모임 공간을 의미하지만, 또한 각종 문헌이나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공간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영민(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한 지역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흔히 언론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영민(2008)의 연구처럼, 이에 내재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들의 구술사와 생애사 해석을 통해 문화와 장소에 관련된 주체성이 어떻게 상호 인식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가를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지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활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장소나 지역과 관련된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물론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소의 의미, 또는 장소성 자체는 여러 방식들, 특히 역사적 과정, 일상생활 과정 그리고 인위적 구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정희선(Chung, H.S., 2004a)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명동성당을 사례로 특정한 종교 공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문화를 담지하고 특히 저항의 공간으로서 인식되

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전중환(Jeon, J.H., 2009)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종로 피맛골을 사례로 도시 뒷골목의 장소성을 세 가지 범주 가능한 층위, 즉 그가 명명한 ‘서발탄의 공간 vs. 탈주의 공간’, ‘망각의 공간 vs. 회상과 생성의 공간’, ‘화석의 공간 vs. 삶의 공간’에서 추출하여 서술하였다. 다른 한편 공윤경(Kong, Y.K., 2010)은 이른바 ‘산동네’의 도시경관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장소성을 구축하게 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류제현(Ryu, J.H. (b), 2012)은 보다 거시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이 복합적이고 경합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 또는 장소나 지역의 정체성은 공적 공간 또는 장소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상호주관적으로 자기의식이나 공동체적 소속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일상생활 및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장소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나 언론을 주도하는 지배집단들이 사회공간적 통합을 촉진하거나 또는 도시나 지역의 마케팅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정한 정체성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도시의 장소성이 언론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례에 관한 연구로, 이영민(Lee, Y.M., 2003; 2006)·임병조(Leem, B.J., 2009) 등은 특히 지역 언론이 지역 정체성을 전략적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외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은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구축된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정체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정체성의 정치 또는 장소의 정치가 요구된다. 대안적 정체성은 보다 실천적으로 도시 공간의 파편화와 소외 현상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구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윤지환(Yoon, J.H., 2011)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에 기초하여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과정을 통한 대안적 집단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즉 최근 사

회지리학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는 정체성의 형성은 한편으로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통해 존재론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 계획이나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또는 장소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에 관한 연구는 도시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정희선(Chung, H.S., 2004b)은 서울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의 저항 공간을 권력대응형, 성역형, 이해관계형, 대중시선 집중형 등으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정권의 특성과 시위의 주체 및 요구에 따라 장소의 유형과 장소감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현주(Jung, H.J., 2006)는 현대 사회운동 연구의 대표적 접근 방법인 자원동원이론,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론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으로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운동을 촉발시킨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조직되는 국지적 맥락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은 도시 사회운동에 관한 직접적 연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 및 지역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Lee, Y.A., 2009), 대도시 정책 형성에서 연구집단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Kim, J.W. and Ahn, Y.J., 2010)도 참여와 역량강화 또는 도시 거버넌스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된 유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인구와 이주의 사회지리

1) 인구 이동의 특성과 영향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급속한 인구이동을 경험하면서,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과소화 문제와 더불어 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문제들을

경계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지방의 중소도시들로부터 대도시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대도시 내부에서는 교외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이른바 역도시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 및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이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사회지리학의 주요 주제였다. 특히 이러한 인구이동은 지역불균등발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경향은 개별 도시나 지역 사회에서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자연적 과정 그리고 이와 동시에 특정 연령층의 선별적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과정이 혼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우선 권상철(Kwon, S.C., 2005)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구 이동에 미치는 요소로서 과거에는 연령,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 특성이 중요했으나 점차 교육, 탈숙련 고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권상철(Kwon, S.C., 2009)은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생적 지역 성장을 위한 광역, 다핵 공간체계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인구 이동의 지역 구조를 파악하면서,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유출, 유입 인구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공간적 인구재분배는 편중에서 균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상철(Kwon, S.C., 2010)에서는 대도시 유입과 유출 인구의 이동방향과 영역 그리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비교하여, 인구이동에서 나타나는 대도시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도시들은 인근 또는 광범위한 지역들로부터 인구를 유입하여 인근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인구이동에 관한 권상철의 연구는 구동희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다. 즉 구동희(Koo, D.H., 2007)는 한국의 7대 도시 및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시도간 및 부산권의 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에 의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은영 외(Choi, E.Y.,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및 가구 비율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부산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 이어서 최은영 외(Choi, E.Y., 2010)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에서 이동 가구의 특성에 따른 선택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비이동 가구에 비해 이동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자가 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이동, 특히 선택적 인구이동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지역 간 및 지역 내 불균등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지역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따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상일·조대현(Lee, S.I. and Cho, D.H., 2012)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예측을 통한 한국 시도별 장래 인구를 추계하면서, 앞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변동 보다는 인구 이동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하위 지역 인구들의 진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은영(Choi, Y.E., 2004a)은 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20대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선택적 인구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승호(Son, S.H., 2011)는 수도권에서 서울의 배후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성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도시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비도시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순·조득환(Park, J.S., and Cho, D.H., 2011)은 대구경북지역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경우 인구가 정체하고 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연주·이보영(Jeong, Y.J. and Lee, B.Y., 2011)은 대구시 수성구를 사례로 선택적 교육 인구이동이 지역의 내적 분화를 촉진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들 간 인구이동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결과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또한 주요

한 연구 주제로 도시인들의 교외지역 또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생활양식의 변화도 포함한다. 예로, 구동희(Koo, D.H., 2004)는 도시 내부 주거에서 벗어나 교외 세컨드 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근 및 통학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오수호(Oh, S.H., 2011)는 도시인들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동향을 검토한 후, 오수호(Oh, S.H., 2012)에서는 농촌지향 이주 가구가 귀촌자금과 영농기술 등의 획득을 통한 귀촌 적응과정과 영농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 2000년대에 조성된 고속철도의 건설·운영 또는 수도권 외곽의 과밀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방 혁신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이들이 인구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2)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복지

한국 사회가 봉착한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부양인구의 비율 증대에 따른 노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진입과 관련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우선 지역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관한 고찰로 나타났다. 예로 정환영·고상임(Jeong, H.Y. and Ko, S.I., 2000)은 대전시의 노령화 지수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김정희(Kim, J.H., 2008)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구성 변화를 예측하고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등의 증가 추세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유미·구동희(Lee, Y.M. and Koo, D.H., 2012)는 부산시 고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공간적 분포를 고찰한 것이지만, 실제 인구비율과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부성(Kim, B.S., 2009)의 연구는 고령군을 사례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고 하겠다.

도시나 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선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희연 외(Lee, H.Y. *et al.*, 2011)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을 기술하고 공간분포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 층의 결혼 지연과 독신,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1인 가구의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조혜중(Chough, H.C., 2001)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요소를 분석하면서, 특히 노인의 거주 선호유형을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노령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관념”이며, 독거의 외로움이나 미래에 대한 근심은 “노동력 부재가 아닌, 노인으로부터의 노동력 탈취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박삼옥 외의 연구(Park, S.O. *et al.*, 2008)는 고령자 고용문제의 지리적 부조응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급증은 이들에 대한 주거, 의료보장, 통행,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송경연 외(Song, K.E. *et al.*, 2008)은 주거, 의료서비스, 이동성 등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공간적 재편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의영(Yoon, E.Y., 2009)은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분포와 운영의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손승호·한문희(Son, S.H. and Han, M.H., 2010)는 노인 복지시설 가운데 주거복지시설의 입지 및 분포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 부족현상이 두드러지며, 도 단위에서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 외 노시학·조창현(Noh, S.H. and Joh, C.H., 2011)은 노인 인구의 이동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장년층과 비교한 노인의 통행 행태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종천(Park, J.C., 2011)은 노인의 여가활동이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관한 이러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지역별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 대책들을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령화와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인구 변화가 개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 배경 또는 경제정치체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보다 거시적 연구 그리고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연구 등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와 국가간 격차 확대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및 이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은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대규모 유입과 이에 따른 다문화 사회공간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초국적 이주 특히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한국 사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구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문남철(Moon, N.C., 2006; 2007)은 동아시아 및 유럽연합(EU)의 노동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 내 국가간 발전 격차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과 소득수준의 차이로 자본과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이들의 이동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

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국적 인구이동 또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유럽 및 동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내 유입·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에 관한 전반적 상황에 관해서는 최병두(Choi, B.D., 2012a)를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주제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다른 곳에서 제시된 논평을 참조할 수 있다(Choi, B.D., 2012b).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다양한 유형들,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지만 이 가운데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결혼이주자이다. 사실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55.9만 명으로 전체의 55.1%(2010)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3년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주자는 12.5만 명으로 12.3% 차지하지만 이들은 국내에 영구 체류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을 통해 인구 증감 및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결혼이주에 대한 공동연구의 결과로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논문들은 각 연구자 개인별로 발표되었지만,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정주패턴과 사회적응 과정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최재현(Choi, J.H., 2007)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여성결혼 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희연·김원진(Lee, H.Y. and Kim, W.J., 2007)은 저개발국으로부터 결혼 이주 여성의 성장과 이들의 정주패턴을 다루고 있으며, 이용균(Lee, Y.G., 2007)은 보은과 양평을 사례 지역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정현주(Jung, H.J., 2007)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동성을 분석하면서 ‘공간 의 뒷에 갇힌 여성’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이주의 여성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이론적, 개념적 논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경험적 고찰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의 주요한 연구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동연구의 성과로는 최병두 외(Choi, B.D. *et al.*, 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증가 추세를 지구-지방화과정과 관련시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또한 이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공간과 사회적 관계를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이주 과정 및 분포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과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새로운 의식(정체성)이나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등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들을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공간'을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와 이주 및 정착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간에 다소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주요한 연구로서, 정연주(Jung, Y.J., 2001)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고찰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특이한 국외 인구의 유입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남철(Moon, N.C., 2004)은 북한 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를 고찰하고, 재외 거주공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 외에도 류주현(Ryu, J.H., 2009a; 2009b)은 외국인 이주자의 통근 특성을 지역 유형별로 분석하고 특히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으며, 또한 류주현(Ryu, J.H., 2012)은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전국적 분포 현황과 이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들의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실제 이들이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사회공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지역적 연구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에서부터 비교적 좁은 구역 내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들을 고찰할 수 있다. 예로, 손승호(Son, S.H., 2008)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를 고찰한 반면, 정현주(Jung, H.J., 2010)는 서울의 대학로를 따라 형성되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다문화공간 또는 초국가적 사회적 장으로서 '리틀 마닐라'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여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내는 다문화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으로 다규모적으로 구축된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수도권에 위치한 안산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예로, 장영진(Jang, Y.J., 2006)은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성장과 이곳에서 형성된 인종적 네트워크에 대해 고찰하였고, 김희순·정희선(Kim, H.S. and Chung, H.S., 2011)은 같은 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공동체 '리트머스'에 의한 커뮤니티 아트를 사례로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이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의 정체성 및 지역의 고유한 로컬리티와 결합하여 어떻게 다문화주의를 표출하고 증진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착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들로, 대구 달서구를 사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을 연구한 조현미(Jo, H.M., 2006), 구미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한 박신규(2008), 부산의 상해거리와 화교축제에 관한 연구로 박규택 외(Park, K.T. *et al.*, 2011)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증대와 정착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가능한 해외 사례들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로, 이영민(Lee, Y.M., 2007)은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1920년대 호놀룰루에 이주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집단들 간 사회·공간적 분화를 고찰하였고, 박경환·이영민(Park, K.H. and Lee, Y.M., 2007)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전개된 개발행위를 둘러싼 민족적 네트워크와 체계모니 갈등을 다중스케일적 지리적 변동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정수열(Chung, S.Y., 2008)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했으며, 이채문(Lee, C.M., 2008)은 초국적주의의 관점에서 한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특히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과정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물론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진행과정을 전제로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약간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비교가능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조현미(Jo, H.M., 2009a; 200b)는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 지원을 위한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사회통합 정책의 과제를 제안하고, 또한 일본 대판부 팔미시 동화지구를 사례로 외국인 이주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 분리와 공동체 의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호상(Lee, H.S., 2011)도 일본의 도쿄 신오쿠보를 사례로 에스닉 커뮤니티의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최병두(Choi, B.D., 2011)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간적 변화를 고찰하여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책으로 편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및 정착 과정, 정부(중앙 및 지방)의 외국인 이주 정책, 특히 지역사회(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예로, 지구-지방적 정체성과 이에 따른 시민권의 보장)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공간에 관한 연구에 주요한 함의 또는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엄청난 사회공간적 변화를 경험했지만,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한국의 사회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의 심화,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경향 등은 한국사회를 정보사회, 다문화사회, 생태사회, 고령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학문들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특히 사회지리학 분야에도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세부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촉진시켰다.

이러한 사회지리학의 발달과정에 관한 논평에서 이론적 논의에 관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제시했으며(Choi, B.D., 2012b), 이 글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소개, 논평을 하고자 했다. 이 글의 논평 대상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지역에 관한 사회지리, 그리고 인구 구성과 이동에 관한 사회지리로 구분되며,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빈곤·범죄·교육·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 공동체의 구축,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며,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의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은 본문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으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같은 세부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 간 상호평가(즉 선행연구 검토)와 업적 누적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론 각 세부 주제별로 보면 사실 겨우 몇 편씩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고, 일부 세부 주제에 관해서는 공동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자들 간 상호교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특정한 세부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이론이나 방법론을 공유하는 학과가 형성되질 못하고, 이로 인해 학문 발전을 위한 인적 토대의 확충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경험적 연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고 추상화한 이론화 작업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서구의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데는 최근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들을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재해석 또는 재구성한 이론들을 발전시켜나가기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사회지리학적 연구의 국내 발표 업적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사회지리학적 연구가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이론적 논의이든 경험적 분석이든지 간에 한국의 사회지리학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사회의 앞으로 변화와 사회지리학의 발전 전망을 고려해 보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사회지리를 조건 짓는 사회공간적 배경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거나 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지구적 규모의 경제통합과 금융자본의 작동은 앞으로 경제 전망을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와 다문화사회 및 고령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으며,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문제도 여전히 주요한 사회공간적 이슈로 남아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예민해 질 것이고, 학술적 연구들은 관련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드러낼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J.S., 2009,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ing population and adjusted school district program in Ul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19(3), 85-97 (in Korean).
- Bae, M.A., 2007a, Social geography of pover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2), 177-195.
- Bae, M.A., 2007b, Historical implicat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Busa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5), 477-494 (in Korean).
- Cho, D.H., Shin, J.Y., Kim, K.Y., and Lee, G.H., 2010, An analysis of spatial accessibility to public healthcare services in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6(2), 137-153 (in Korean).
- Choi, B.D., 2005, Revitalization of common space in apartment complex for urban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8(3), 35-51 (in Korean).
- Choi, B.D., 2006, Reconstruction of regional community for good city to live,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0(4), 513-528 (in Korean).
- Choi, B.D., 2008, **A critical reflection on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5), 604-626 (in Korean).
- Choi, B.D., 2011, *Multicultural Coexistence: The Transformation of Japan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Roles of Local Communities*, Purungil, Seoul (최병두, 2011,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서울).
- Choi, B.D., 2012a,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7(1), 13-36 (in Korean).
- Choi, B.D., 2012b, Trends and issues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s in S. Korea: (1) **Theoretical discussion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47(3), 554-567.
- Choi, B.D., et al., 2010, *A Regional Study on Goryung-Gu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Tasks of a Suburb Region of Large City*, Purungil, Seoul (최병두 외, 2010, 고령군 지역연구: 대도시 근교지역의 특성과 발전 과제, 푸른길, 서울).
- Choi, B.D., Lim, S.H., Ahn, Y.J., and Park, B.G., 2011, *Glocalization and Multicultural Space*, Purungil, Seoul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서울).
- Choi, E.Y., 2004a, **Migration selectivity and growing spatial inequality**: in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7(2), 57-69 (in Korean).
- Choi, E.Y., 2004b, The differentiation of reproductions of educational capitals and the formation of the gated c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3), 374-390 (in Korean).
- Choi, E.Y., 2004c,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of housing value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9(3), 592-605 (in Korean).
- Choi, E.Y., Koo, D.H., and Park, Y.S., 2009,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1): population structure and mig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5), 572-589 (in Korean).
- Choi, E.Y., Koo, D.H., Joe, S.K., 2010,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2):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migration sele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6(2), 123-136 (in Korean).
- Choi, J.H., 2007,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gencies in the marriage mig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to Ko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1-14 (in Korean).
- Choi, Y.J., and Lee, K.S., 2005, The spatial disparity of opportunity potentials in Kore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8(1), 91-105 (in Korean).
- Chough, H.C.,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pulation change and the aged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6(4), 356-381 (in Korean).
- Chun, J.H. and Lee, S.W.,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migration history on tenure choice: focusing on the determinants and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typology and housing choi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6), 651-673 (in Korean).
- Chung, H.S., 2004a, **Changing social meanings of a sacred space: the case of Myeongdong Cathedra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7(1), 97-110 (in Korean).
- Chung, H.S., 2004b, Changing places of protest in Seoul: 1990-2003,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38(4), 447-460 (in Korean).
- Chung, S.Y., 2008, Racial/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case study of Asian immigrants in Chicago Illinois PMS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4), 511-525 (in Korean).
- Chung, S.Y., 2009, Neighborhood and segregation in the urban theor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2), 103-118.
- Ha, S.K., 2000, Housing poverty and quality of life in urba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5(2), 295-306 (in Korean).
- Heo, S.Y. and Moon, T.H., 2011, Spatial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real crime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4(4), 194-207 (in Korean).
- Jang, Y.J., 2006, Growth of the business area for migrant workers and ethnic networks: **in a case of Wonnok-Dong, Ansa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5), 523-539 (in Korean).
- Jeon, J.H., 2005a, A consideration on the major concepts of rural social geograph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3), 353-368 (in Korean).
- Jeon, J.H., 2005b, A study on the territoriality and the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of a commoner's settlement in modern tim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6), 613-630 (in Korean).

- Jeon, J.H., 2009, Place memories of the urban backlane : in case of the Pimat-gol of Jongno, Seou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6), 779-796 (in Korean).
- Jeong, H.Y. and Ko, S.I., 2000, **Spatial distribution of aging district in T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6(2), 1-19 (in Korean).
- Jeong, Y.J. and Lee, B.Y., 2011, **Selective educational migration and internal segregation: a case study of Suseong-Gu, Daegu**,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3), 101-117 (in Korean).
- Jo, H.M., 2006, Formation of ethnic community in the concentrated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a case study of Igok-Dong, Dalseo-Gu, Daegu,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5), 540-556 (in Korean).
- Jo, H.M., 2009a, The problems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ty - a case study of social tolerance policy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4), 449-463 (in Korean).
- Jo, H.M., 2009b, Segregation of the lowest social class and transformation of communal consciousness: as a case study of Douwa District in Yao City, Osak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6), 803-819 (in Korean).
- Joo, K.S. and Park, Y.W., 2010, A study on the growth and spatial differentiation of housing market in Yongin C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2), 240-255 (in Korean).
- Jung, H.J., 2006, **Towards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exploring geographical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4), 470-490 (in Korean).
- Jung, H.J., 2007,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on mobility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53-68 (in Korean).
- Jung, H.J., 2010, **Reading "Little Manila" along Daehangno: explo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Spac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6(3), 295-314 (in Korean).
- Jung, Y.J., 2001, Spatial developmental process of foreign Laborers' employment : the case of Kyongi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4(1), 27-42 (in Korean).
- Kil, H.Y. (translation), 2007, Apartments Republic: Apartments in Korea, shown by a French Geographer, Humanist, Seoul (김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스트, 서울; Gelezeau, V.,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s radieuses, CNRS eds. Paris).
- Kim, B.S., 2009, Depopulation and aging of rural areas in Korea - a case study of Goryeong-gun, Gyeong-sangbuk-do,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1), 36-52 (in Korean).
- Kim, B.S., Kim, Y.S., Chung, S.Y., 2011, spatio-temporal changes of social-wellbeing: a case study of JeollaNamdo region, 1985-2005,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2), 204-215 (in Korean).
- Kim, D.H., 2007, A direction in the making a better city of a medium scale city, Jinju,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1), 11-17 (in Korean).
- Kim, H.S. and Chung, H.S., 2011, **Practicing multiculturalism through community arts: the case of art space "Litmus" in Wongok-dong of Ansan-si**,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5(1), 93-106 (in Korean).
- Kim, J.H., 2008, A predic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1(1), 31-42 (in Korean).
- Kim, J.W. and Ahn, Y.J., 2010, The role of think-tank and civil organization in policy formation of a metropolitan city: with reference to urban governance debate,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4(4), 609-622 (in Korean).
- Kim, K.Y., Shin, J.Y., Lee, G.H., and Cho, D.H., 2009, A location model and algorithm for visiting health-care districting for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6), 813-831 (in

- Korean).
- Kim, T.Y., Jin, W.H. and Yang, S.H., 2011,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s in the transition zone of central Daegu,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6), 710-725 (in Korean).
- Kim, Y.H., 2007, An analysis of urban economic and social status effects to residential crimes using Bayesian hierarchical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1), 115-127 (in Korean).
- Kim, Y.H., 2009, An analysis of urban residential crimes using eigenvector spatial filtering,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2(2), 179-194 (in Korean).
- Ko, J.H., 2001, Crime patterns of CBD in Cheongju C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6(3), 329-341 (in Korean).
- Ko, J.H., 2007, An investigation of the fear of crime in the neighborhoods: the case study of Youngtong, Suw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2), 243-257 (in Korean).
- Kong, Y.K., 2010, A study for the urban landscape and sense of place on the mountain town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2), 129-145 (in Korean).
- Koo, D.H., 2004, The influence of urban exodus on the change of a wa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1), 102-115 (in Korean).
- Koo, D.H., 2007, Spatial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6), 930-939 (in Korean).
- Kwon, S.C., 2005, Migration to the capital region in Korea: asses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migrant sele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1(6), 571-584 (in Korean).
- Kwon, S.C., 2009, Migration regions in Korea: analyses for migration fields and the spatial population redistribution rol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2), 49-63 (in Korean).
- Kwon, S.C., 2010, **Migration and large cities with reference to geographic and social mobil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3), 15-26 (in Korean).**
- Lee, C.M., 2008, Korean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a tran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2), 141-158 (in Korean).
- Lee, C.S., 2011, A birth cohort approach to the household life-cycle model of residential mobility: The case of Jinju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1), 75-95 (in Korean).
- Lee, G.H., Shin, J.Y., Cho, D.H., and Kim, K.Y., 2010, Research on optimizing routing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visiting-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1), 1-16 (in Korean).
- Lee, H.S., 2011, The changes in local community by the growth of ethnic community: a case study on Shin-Okubo in Tokyo,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2), 125-137. (in Korean)
- Lee, H.Y. and Kim, W.J., 2007, An analysis of the growth and settlement pattern of marriage migration of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15-33 (in Korean).
- Lee, H.Y. and Shim, J.H., 2009, The residential mobility pattern and its determinant factors of gentrifier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3), 15-26 (in Korean).
- Lee, H.Y., Noh, S.C. and Choi, E.Y., 2011, Growth patter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on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4), 480-500 (in Korean).
- Lee, J.H., 2007, **Direction and task of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1), 1-10 (in Korean).**
- Lee, K.S., 2005,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2), 242-251 (in Korean).
- Lee, S.I. and Cho, D.H., 2012, Subnational population

- projections of Korea based on interregional migration forecasting: a **multiregional Cohort-component**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7(1), 98-120 (in Korean).
- Lee, S.I., 2007, A spatial statistical approach to residential differentiation (I): developing a spatial separation measur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4), 616-631 (in Korean).
- Lee, S.I., 2008, A spatial statistical approach to residential differentiation (II):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using a local spatial separation measur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1), 134-153 (in Korean).
- Lee, Y.A., 2009, **Exploring key fac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for local capacity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2), 261-272 (in Korean).
- Lee, Y.A., Jeong, Y.H., 2012, Characteristics of poor people's life by deprived area typ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5(1), 61-73 (in Korean).
- Lee, Y.G.,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35-51 (in Korean).
- Lee, Y.M. and Koo, D.H., 2012,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Busan,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6(2), 161-171 (in Korean).
- Lee, Y.M., 2003, **Localization strategies and making process** of regional identity by community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6(1), 31-44 (in Korean).
- Lee, Y.M., 2006, **Social construction and politics** of identity of the Gangnam Regio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9(1), 1-14 (in Korean).
- Lee, Y.M., 2007, **Multiculturalism and Socio-Spatial Segregation** of Honolulu in the 1920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675-690 (in Korean).
- Lee, Y.M., 2008, Relational reconstruction of regional identity of Gangnam, Seoul: focusing on internal categorization by the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1(3), 1-14 (in Korean).
- Leem, B.J., 2009, **Construc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institutionalization: making 'Nae-Po' region reflected** in Hong-Seong Tim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1), 89-104 (in Korean).
- Lim, E.J., 2011, An exploration on the sustainable rural village: a case study of Chungnam Hongsung Mundang-ri,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20(3), 61-72 (in Korean).
- Moon, N.C., 2004, On the factors of migration, patterns and routes of migr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2004, 38(4), 497-511 (in Korean).
- Moon, N.C., 2006, Mutation of flows of FDI and labour within East Asi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2), 215-228 (in Korean).
- Moon, N.C., 2007, Enlargement of EU and migration of worker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0(2), 182-196 (in Korean).
- No, D.M., Choi, B.D., Cho, M.R., and Ryu, J.S., 2006, Generation of working poor as new urban poverty and its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6), 671-692 (in Korean).
- Noh, S.H. and Joh, C.H., 2011, Change in travel behavior of the elderly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6), 781-796 (in Korean).
- Oh, S.H., 2011, **Research trend in urban-to-rural migration**: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from 1996 to 2010,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2), 77-90 (in Korean).
- Oh, S.H., 2012, Adaption process of migration and reality of households heading to farm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8(1), 101-117 (in Korean).
- Park, J.C., 2011,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Journal*

-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4), 395-415 (in Korean).
- Park, J.S. and Cho, D.H., 2011, The spatio-temporal change in popul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Daegu-Gyeongbuk Region,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5(1), 1-9 (in Korean).
- Park, K.H. and Lee, Y.M., 2007, Rethinking Los Angeles Koreatown: multi-scaled geographic transition since the mid-1990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2), 196-217.
- Park, K.T., Ha, Y.S., Byun, K.S., 2011, Chinatown in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as a field of heterogeneous cognition and practice - focus on Sanghae Street, Festival, Chinese schoo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20(3), 87-100 (in Korean).
- Park, S.K., 2008, A study on the change of identity and ag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hanging with the social positionality: a case study of Gumi,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1), 40-53 (in Korean).
- Park, S.O., Jin, J.H., and Koo, Y.M., 2008,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of Seou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3), 337-357. (in Korean)
- Ryu, J.H.(a),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distance of foreign work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1), 77-90 (in Korean).
- Ryu, J.H.(a), 2012, A study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ethnic background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8(1), 71-85 (in Korean).
- Ryu, J.H.(b), 2012, **The relation between place and identity in Korea: a preliminary study for the Korea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7(1), 1-12 (in Korean).
- Ryu, J.H.(a), 2009a,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regional typ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foreigner commut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3), 339-354 (in Korean).
- Ryu, J.H.(a), 2009b,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distance of foreign work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1), 77-90 (in Korean).
- Ryu, Y.T., 2004, The (re)production of urban housing space and housing policies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1990s: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5), 768-785.
- Ryu, Y.T., 2005a, Diverse perspectives on urban housing: 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identity, and feminist perspectiv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8(3), 103-119 (in Korean).
- Ryu, Y.T., 2005b, Critical reflections on ecological, neo-classical, **behavioral, and managerial perspectives** on urban housing and residential structure, *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49, 127-142 (in Korean).
- Ryu, Y.T., 2006, **Spatial inequalities and temporal variations in the change rates of house prices and rent levels across Korean Cities, 1986-2000**,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9(3), 139-151 (in Korean).
- Ryu, Y.T., 2007, **The politics of scal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 in Korean housing politic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691-709.
- Ryu, Y.T., 2010, Housing submarkets in the city of Seoul and the degree of spatial disparities in house prices and rent levels across Seoul, 1988-2000,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1), 89-108 (in Korean).
- Sim, K.T., 2009, The changes of social spatiality in rural areas: **focusing on population structure and utilization of territorial assets in Gyeongnam Provincial villag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4), 510-531 (in Korean).
- Son, S.H., 2008, Change of distribution and residential segrega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1(1), 19-30 (in Korean).
- Son, S.H., 2011, The changes of population properties and population size in urban-rural consolidated city

- Ans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1), 81-94 (in Korean).
- Son, S.H., Han, M.H., 2010,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ging and the location of senior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1), 17-29 (in Korean).
- Song, K.E., Park, S.O., and Kim, S.B., 2008,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nd 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life of those using the facilities of the Capital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4), 394-417 (in Korean).
- Yim, S.H. and Lee, Y.W., 2002, Social polariza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8(2), 270-279 (in Korean).
- Yim, S.H., An analysis of regional types of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1(2), 211-232 (in Korean).
- Yim, S.H., 2009, **Regional dispar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administrative areas: focused on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1(4), 1-14 (in Korean).
- Yim, S.H., Lee, C.W., and Jeon, H.S., 2003,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y based on apartment residential spa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9(3), 314-328 (in Korean).
- Yoon, E.Y., 2009, **Analysis of efficiency gap of local governments' aged welfare institutions in Gyeonggi-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6), 774-788 (in Korean).
- Yoon, J.H., 2011,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and appropriation activity: the case of Mullae Art Village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2), 233-256 (in Korean).
- Yoon, O.K., 2008, Community making in urban areas and the implications: a case of Samduck-Dong, Daegu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5), 466-479 (in Korean).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15 Raeri-ri, Jinryung-up, Gyungsan-si, Gyungsangbuk-do, 712-714, S.Korea** (e-mail: bdchoi@daegu.ac.kr; phone: +82-53-850-4155)

최초투고일 2012. 8. 13
수정일 2012. 10. 8
최종접수일 2012. 10. 15